

濟州大學校總同窓會

고영진
교육대학원·수학전공

다른 출발과 맺음 위해

로 교사들의 주말계획이 배
아리되어 내 발걸음을 묶어
놓곤 한다.

시내버스에 몸을 맡기고나
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
었다. 오늘도 용케 내 발걸음
이 빛나지 않았다는…….

린 시내야경을 보며 날마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지만…….

논문 계획서를 제출한지도
6개월이 지났다. 논문을 쓰
느라 도서관에서 이 논문 저
논문 참고자료를 뒤적거리다

발걸음 동여매며 채찍하던 나날들 과정의 진통도 이제기쁨으로 남아 또 다른 의미를 찾아서

그러나 대학정문을 들어서면
서 문득 세미나 준비를 하지
못했음을 알았다. '주어/오
올라' 후강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빌며 강의실
문을 들어서서 순간 모든 기
대는 사라지고 등글기에 식
은 발과 '좀 더 연극을 해
와야겠읍니다.'는 교수님
말씀만이 강의가 끝난 후에
도 여운으로 남았다.

돌아오는 날은 모든 일이 손
에 잡히지 않고 답답한 마음
을 품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고통과 인
내의 순간들에도 종지부를
찍어야한다니 최선을 다하지
못한 대학원 생활에 아쉬움
만 남는다. 그러나 내가 사
회인으로서 다시 배움을 택
했던 그때처럼, 이제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또 다른 의
미를 찾아 떠나려한다.

돌아오는 버스 창가에 걸

어오는 날은 모든 일이 손

이제 그들의 고통과 인

캠퍼스를 떠나며

「무엇 정제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보이나 후에 그
로 말미암아 언젠한 자에게는 의
의 굉장한 열매를 맺나니」

의미는 다를 지 모르나 사회를
향하는 길목에서 聖經의 말씀과
함께 명상에 잠겨본다.

해마다 2월 이때쯤이면 각급
학교 졸업식이 이어지고 수많은
졸업생이 배출된다.

이제 4년의 자취에 선을 긋는
본교졸업식이 거행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했던 初·中·高졸업
식을 앞둔 심정과는 달리 왠지
걱정이 앞선다. 모두가 다 그렇
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계속된
학업이란 특색에서 벗어나 社會
로 첫 발을 디디야하는 중요하고
도 어려운 일인 데 비해 그동안 해
온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未
備하기 때문이다.

「과연 4년동안 대학이란 방
대한 土地위에서 나름대로 얼마
만큼이나 수고의 땀을 흘렸는

성실한 삶을 위하여

김수길
경제학과·4년

강종강파티, M.T 또는 학우들
과의 즐거웠던 나날들이 그리워
서이기 보다는 좀더 깊이 眞理를
탐구하고 자기의 Vision을 현실
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
는 보람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었기 때문 일 것이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이고 廣大理想이지
만 입학하는 학생들이나 이 순간
에도 책과 씨름하는 후배들에게
는 졸업의 앞문 여러사람들의
바람이 피지는 않을까?

聖經에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
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다」는 말씀이 있다.

時間은 모든 것이 동시에 발생
하는 것을 막는 현실세계의 장치
이다. 주어진 시간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한가지 일을 할때
다른 일을 희생해야만 할때가 허
다하기 때문이다.

이제 교정을 떠나면서 길이 간
직하고 싶은 Benjamin Frank-
lin의 말이 생각난다.

「하나님은 근면한 자에게 모
든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게으
른 자가 잡자는 동안 길이 정기질
하라.」

소중했던 네개의 星霜 남보다 근면한 삶을 키울터

가「自問해 본다. 혹시 그럭저럭
시간을 허비하며 무의미하게 보
냈던 적이 많지는 않았는지…….

4년이란 기간은 길고도 짧다.
현재의 시간이 진행되는 가운데
처한사람은 그시간이 더더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시간을 경
험한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너

무나도 소중하고 빠르게 지나갔
고 소중했었다는 느낌이 든다.

학사모를 쓰게 된 지금, 세월
이 살같이 흐른다는 말이 절실히
와닿으며 졸업생이면 누구나 강
의실을 찾아 해마다 1학년으로
돌아가고픈 생각이 들것이다. 그
것은 아마도 신입생환영회나 개

교정 떠나는 선배들에게

형. 당신의 부재를 어떻게 인정해
나가고 그 자리를 메우어 나갈수
있을지 지금은 그저 막막하기만
해.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열로
를 개척해 나갈 기대와 기쁨보다
는 두려움뿐이다. 새로운 땅으로
나아 갈수록 빈번히 등장했던 눈
자와 수렁에 갇혀 질식사 버리지
나 않을까? 하는 막연한 공포감
에 가위눌려 지내기도 하고 또
아주 가끔씩이지만 나를 비꼬려
대어서는 자유롭게 하여주지
않는 것들에서 벗어나 날으는 꿈을
꾸기도 해.

요즘 며칠간은 바다를 겨냥고
출연 배우하는 방파제 폭풍을 견
는 것이 유일한 안식이었어. 바다
는 변함없이 푸른 몸을 품고거려
며 살아 출렁였고 상심하는 나에
게 영원고 무상과 무한을 깨닫게
해 주었어.

바다를 등지고 도시를 향해 걸
어나오며 느꼈던 치사하게(?)
처절한 재확인.

결방은 패배이며 끝 죽음이었
어. 내가 현재에게 지불하여야
할 것은 전신적인 무위와 혐오할
만한 혼란속에 나자신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 더이상
퍼져려 않아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 그리고 스물셋은 결코 감당
해 내기 어려운 끔찍한 나이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신성하고 희
망이 있는 나이가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었어.

가끔씩 아직도 나에게 삶에 대
한 애착과 정열이 남아있음을 고
맷게 생각해. 긴 밤을 하얗게 새
우고 동터오던 아침을 맞을 때와
같은 경이.

진부한 발전이었던지 누가 나
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의 결미를 벗어나
리고 스스로 매몰되거나 도취됨
이 없이 깨어있어야 한다는것.

미지의 영토 개척해 나가길 스스로 매몰·도취됨 없이

형. 성당의 색유리창 만큼이나 반짝
이던 우리들의 추억들을 기억
해? 식어빠진 커피를 마주하거
나 또 때로는 이십오도의 알콜을
마주해 한쪽으로 만 치달리던 경
직된 사고를 풀어주던 느긋한 대
화를. 밝아오던 시민회관거리로
새날을 예감하며 밝아 내려오던
우리들의 정열을…… 무자한 시간
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위해 몸

김나영
생물학과·3년

부딪혔던 우리들의 처절한 오만.
그 모든것들이 추억거리로만 남
아있지 않고 자양분이 되고 누룩
이 되었으며 형이 더 커보이고

위대해 보이게도 몰라. 책을
읽다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
사람들은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환경을 비난하지만 이 세상에서
잘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일어
나서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찾고
만일, 찾지못하면 자기들이 그
것을 만든다.

형 두루두루 건강하고 언제나
살아있는 우리로 만나뵙길 바래
요.

음악감상회를 개최한다.
한편 초대권은 시내 각지점소
에서 무료로 배부된다.

제5회 小談 아트그룹展
투자신탁 전시실서 열려

제5회 小談展이 지난 10일부
터 16일까지 7일간 시내 투자신탁
전시실에서 열렸다.

본교 미술교육과 졸업생, 재학
생을 비롯 미술에 관심있는 사람
17인으로 구성된 小談의 이번
전시회에서는 14명이 작품을 출
품했는데, 고인희씨의 「태고의
정」을 비롯 모두 28점이 선보였
다.

▲클래식 음악 감상회
「갈」호텔 카파룸에서
제주문화방송(MBC)에서는
오는 21일 제주KAL호텔 카파
룸(2층)에서 「아름다운 선율,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 클래식

▲제주를 소재로한 작품
신용훈·문형섭2인展
「신용훈·문형섭 2인전이 지
난 6일부터 10일까지 시내 동
인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제주의 삶

문화원신

의 모습을 소재로한 문형섭(미
교·4)씨의 회화 12점과 제주
인의 모습을 담은 신용훈씨의 사
진작품 13점 등 모두 25점이 선
보였다.

▲해양문에 작품모집
사단법인 한국해기사업회에서는
제13회 「해양문예작품」을 4
월30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용모요령은 해양을 소재로 하
는 글로서, 해양수기는 2백자 원
고지 50장 내의 (당선작으로 60
만원), 시는 장수·편수 제한없고
(당선작으로 30만원), 수필은
2백자 원고지 15매내의 (당선작
으로 30만원)로 부산시 동구 초
당동 1212-7 (해기사회관)월간
「해기」 편집부에서 제출한다.

한편 당선작 발표는 87년 5월
호 「해기」지상 및 개별통지하며
시상식은 5월 중순에 있게된다.

○……졸업이 종착역일 순
없다. 그러므로 졸업과 출발
은 일직선상에 놓여져있
어야 한다. 교정을 떠나는
졸업생들의 출발의 발돋움
과 재학생이 선배들에 대
한 바람들을 여기 실는다.
<편집자註>

눈서리게 그리운 날들

겨울인데도 날씨가 따뜻하
면 기분이 나쁘다. 하늘은
왜 저처럼 파랗고 사람들은
왜 모두 아름다와야하며, 시
간은 그냥 있는데 왜 나는
흘러가야만 할까.

눈물이 쫓겼다.
×××

「바람이 분다 슬픈 사연의
거리에
바람은 이렇게 잘 곳 없이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만
서 있어도 불어올까
내가 바람에 날아가도
바람은 계속 불어올까
불어올까, 바람은 집채만
한 파도를 물고와
내가 아직 연연해 하는 모
든 것들을 쏘아떨어는데」

김정환님의 詩 「태풍주의
보」의 부분이다. 내가 「졸
업」이라는 막연함과 「태풍
주의보」라는 구체적인 연
관시키고 합리화시키려는 것
은 아직은 내가 졸업을 당
할(?) 이유가 없고, 대학4

김희영
국어국문학과·4년

년의 정리라는 결과가 태풍
주의보처럼 나를 여지없이
흔들어 놓고 있는데 있는지
도 모른다.

내게 있어 「나의 졸업」은
그만큼의 거리로 태풍이 다
가오고 있음을 주의시켜 준
다. 성년의 고통이 그러하고
선뜻받아들이기 힘든 기성
인의 혼돈이 그러하고 시대

꿈 다 채우진 키가 너무 작던 4년 타임캡슐속의 추억 생각하며 더 진실된 내일이 있음을 믿자

의 아픔이 그러하다.
「타임 캡슐」
4년의 시간을 병에 넣는
다. 때로는 고독했던 4년,
바람따라 팔랑거리며 날아가
버린 4년, 초년의 혼란함과
넉넉함으로 치자한 젊은 칠

월에도 바람부는 사월에도
건강하게 웃을 뚝뚝 우리.
친구 안녕. 행운을!
우리는 언제나 즐거웠고
또한 슬펐지. 기대가너무 커
서 그 기대를 다 충족시키기
에는 우리의 키가 너무 작았

작이라면 더 진실된·내일이
있음을 믿자.
타임캡슐에 추억을 담은
다. 꺾였던 4년은 그대로의
내 생활이요, 내 젊었던 일
기리다. 많은 도움주신 빛의
님, 감사합니다.

면을 할애하는 민주(?)TV의 위력
에 감탄하는 바이오나, 그러다
고 초상집이 하루아침에 전차집으로
변한 것이다.

자유위해 떠난 뺨에게는 명복을,
자유찾아온 鐵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길.

○……박물관 관람기.
관람력이 조금만 심화한 학생이면
누구나 본교 박물관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금방 알

녹슨 자물통 소리뿐

아침 것이다. 내용인 즉 유물전시
장에 사투리와 관장실도 함께 전시
이체로 분열.

박물관을 관람했던 한 외부인사
「이 대학은 박물관관실과 사투리
도 제주도의 골품같은 모상이다.」
정말로 낯부끄러운 얘기이니 당
국은 귀담아 들으소서.

○……민심은 천심이라는데.
아라주 취재자 몰다가 모태화 계
사판에 학생회의이름으로 설치된건

함을 보게 되었는데, 민심은 천심
이란 말처럼 우리 아라캠퍼스에서도
학생과 학생회간에는 생동하는 대학
화를 만들어가고 있음에 호소하기만
하. 아라주 호기심에 건의함을
흔들어 보니 나는 소리는 한년도
없어 본적이 없는 것 같은 녹슨 자물
통 소리뿐…….

우리 아라캠퍼스에선 건의함을 열
어볼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학생회에선 직무를 완벽하게 해
내는 것 같아 아라주 호호(?) 하지만 하
군요. 건의함도 방학하는 쉬는 것일까?

○……主客關係.
진 겨울방학동안에도 도서관에
학우들이 불타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
이지 않아 이를 보는 아라주 참으로
호호한 마음이었는데.

「도서관의 학생들 대부분이 타대학
학생」이라는 모태화의 귀뜸에 아
연실해.

학원님네/ 알보(?)가 언제나
미덕은 아남을 아сыл진대, 우리 공
간은 우리가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학생/ 신분증을 보여야 들어
갈 수 있어.
지난해 11월 본교 학원사태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생들에 대한 첫
공판이 있었던 날, 법원정문에서 있
었던 해프닝. 신분증상에서 보던 일
을 직접 당하니 기분이 어떨까.

일시적인 인구밀도의 급증으로 그
렇게 됐지만 재판에 참관하는 모든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하는 처
사는 과연 무슨 연유인지.

○……哲이 시간을 못갖추 건 건지
鐵이가 시간을 잘못해 온 건지……
물론은 뺨에 대해서는 최대한 즐
고 아서서 나오면 복탄출한 鐵에
대해서는 최대한 놀리고 아깝없이 화

롯데골든인삼맛썹에는 인삼엑기스가 들어있습니다

인삼의 맛을 썹으로 즐긴다!

인삼 엑기스를 넣어 만든 롯데골든인삼맛썹은
대한민국 전매청 허가제품입니다.
입안이 텁텁할때 골든인삼맛썹을 씹으세요.
인삼 엑기스의 씹힐맛에
입안이 개운해지고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롯데제과